

清 中期의 畫家

朝鮮人 李世倬

許 英 桓

1 머리말

이 글 「清 中期의 畫家 朝鮮人 李世倬」을 쓰게 된 동기는 14년전과 5년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 간다.

14년전의 일은 1962년 6월 서울 국립박물관발행 美術資料 卷5호에 실려있는 金載元박사의 글 「李世倬」을 말한다. 그때 필자는 신문 기자로서의 흥미 이상으로는 李世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5년전, 즉 1971년 가을 臺灣에서 中國美術을 배우고 있을 때 故宮博物院에서 2백여년전의 한국인이었으며 名畫家였던 李世倬의 畫蹟들과 遭遇했을 때의 흥분과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때는 李世倬과 아주 같은 시기에 같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書畫를 모르고, 감상하고, 책(墨緣彙觀)을 썼던 朝鮮人 安岐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었을 때여서 일종의 감동같은 기분은 걸잡을 수 없을만큼 컸었다.

그래서 安岐에 대해서는 한국일보(1972년 1월 18일자)에 보도한 바가 있다^①.

李世倬에 대해서는 金박사의 글이 있는데 굳이 아직 어리고 연구가 부족한 필자가 쓰게 된 것은 두 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는 金박사가 그의 글 끄트머리에 『이렇게 쓰고보니 아까운 清代의 畫家 한 名을 우리 國籍에서 除籍한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을 禁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同族이 아닌 것이 아닌가. 爲先 이곳에

疑問을 던져 보는데 어느 분에게서 다른 資料가 있으면 알고저 하는 바이다.』라고 쓰신데 대해서 재주도 모자라고 글도 짧은 필자가 감히 몇 가지 자료를 보태서 李世倬은 분명히 朝鮮人(18세기 한국인이니까)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金박사도 그의 「李世倬」에서 여러가지 자료(Osvald Siren의 Chinese Painting, 中國畫家人名大辭典, 清畫家詩史, 國朝畫徵錄, 中國古今地名大辭典 등)를 인용했지만 필자는 여기에 다른 자료(中國繪畫史, 中國歷代書畫家刻家字號索引, 故宮書畫錄, 明清畫家印鑑, 宋元明清書畫家年表, 中國美術史, 故宮博物院收藏品, 故宮季刊 등)를 더 보태서 李世倬을 더 자세히 밝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2 朝鮮人 李世倬

여러가지 중국책에는 李世倬(이세탁, 중국음으로는 리쓰조)을 二韓人(中國人名大辭典, 國朝畫徵錄, 中國繪畫史 등), 奉天人(淸畫家詩史), 滿洲人(明清畫家印鑑), 朝鮮人(中國美術史, 畫中十哲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Osvald Siren도 李世倬은 어렸을 때 Korea에서 China로 와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며 작품활동을 했다고 기록했다^④.

그런데 金박사처럼 三韓人을 반드시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論理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물론 三韓이라는 地名 때문이다.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는 三韓을 遼에 둔 縣의 이름이라 했고 오늘날의 赤峰縣이라고 했다. 이 辭典에 쓰인 遼置라는 말은 907~1125년 사이에 있었던 滿洲의 遼나라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遼나라 때 있었던 三韓縣이라는 滿洲 땅의 한 縣의 이름은 그후 一〇차례나 바뀌었으며 一八세기 李世倬이 살던 때는 전혀 없어진 地名이 되고 말았다^⑤. 따라서 李世倬이 朝鮮人이 아니고 中國人이었다면 마땅히 赤峰縣人이라고 했을 것이다.

李世倬을 奉天人이나 滿洲人이라고 한 근거는 李世倬이 사용한 印章

(모두 七九종류) 가운데 「鍊嶺(철령) 李世倬印」이라는 長方朱文印(긴네
모퉁의 빨강글씨도장)이 있는데 이 鍊嶺은 奉天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근거가 확실한 예기다⑥.

그러므로 李世倬을 朝鮮人이라고 밝힌 것은 雍正·乾隆年間の 화가였
던 朱文震이 書中十哲에 넣어 높이 평가하면서 밝힌 것뿐인가 생각한다.

그리고 李世倬의 외삼촌이며 指頭畫(손가락으로 그리는 그림)의 名手
였던 高其佩를 遼陽人·滿洲人 등으로 한 것을 보아도 李世倬이 滿洲에
살았던 朝鮮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李世倬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언제 한국을 떠나 만주에서 살다가 중국 본토로 들어
갔는지, 한국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 朝鮮人으로서 淸에 歸化하여 이름을 떨친, 즉 淸의 仕籍에 오른
滿洲旗分內 高麗姓이 四二라 했다. 그 가운데 義州金氏인 金簡은 吏部
尙書, 또 義州人 朴東安은 內大臣, 義州人으로 보이는 安岐는 書畫鑑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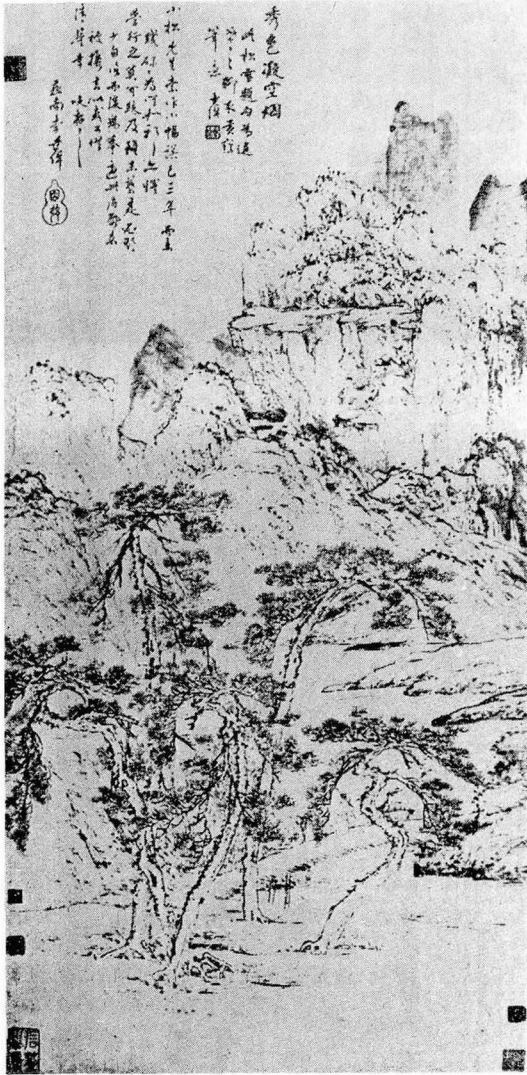


圖 1. 秀色凝空圖

家, 韓明璉은 一等輕車都尉등을 지내고 있다⑦.

이처럼 많은 朝鮮人과 마찬가지로 李世倬도 그림에 재주가 있는데다
가 高官인 아버지(李成龍, 湖廣總督)와 外祖父(高天爵, 淮鹽運使)의 도
움과, 外三寸이며 화가인 高其佩와 유명한 山水畫家인 王翬의 가르침을
받고 그림을 그리면서 詩도 쓰고 벼슬(副都御史라는 꽤 높은)까지 지냈
다고 하겠다.

淸書傳輯佚三種引得(一九三四年, 哈佛燕京學社刊)에 의하면 李世倬은
乾隆庚寅(一七七〇年) 봄 八〇세를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
니까 그는 康熙年間(一六六二~一七二二)의 前期인 一六八〇年代後半
경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⑧.

3 李世倬의 畫蹟

八〇여년간 살면서 수 많은

그림을 그렸을 李世倬이 남긴 畫蹟은 지
금 八〇여점 뿐이다⑨. 作畫年代로 본
그의 年譜를 간략히 작성해 보면 다음
과 같이 된다.

- △ 一六八〇~一六九〇年生(淸·康熙
一九~一九年, 朝鮮·肅宗 六~一六年)
- △ 一七二〇年(康熙 五九年) 山水圖
를 그림(現 토론토 個人藏)
- △ 一七四一年(乾隆 六年) 山水·花
卉·翎毛圖를 그림(二張의 冊)
- △ 一七四七年(乾隆 一二年) 花卉·
翎毛圖를 그림(八張의 冊)
- △ 一七四八年(乾隆 一三年) 山水圖
(墨妙珠株)를 그림(二四張의 冊)
- △ 一七五〇年(乾隆 一五年) 山水圖
(吳鎮筆意)를 그림

△ 一七六五年(乾隆三〇年) 雜書를 그림(二張의 冊)
 △ 作書年代를 알 수 없는 그림으로는 山水圖(一〇張의 冊과 一二張의 冊)、扇面畫(二張의 冊)、觀瀑圖(클리브랜드 美術館藏)、秀色凝空圖(런던 個人藏)、山水圖·對松山圖·連理杉圖(臺北 故宮博物院藏) 등이 있다.

四〇세가 안됐을 때인 一七二〇년에 그린 山水圖는 曠山派¹⁰⁾의 화가 담계 맑고 아름답게 그린 풍경화다. 당시의 다른 山水畫家와는 달리簡潔하고 浪漫的인 山水畫를 잘 그린 李世倬의 이 山水圖에는 山間의 평화로움이 사나워 보이지 않는 山,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와 竹林,多情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一七四八年(환갑을 넘겼을 때)에 중국의 여러 名勝地를 그린 二四張의 山水畫冊(四一×六三cm)의 그림은 李思訓의 畫法, 王維의 詩意, 石濤의 筆意, 西洋畫法, 細筆法, 粗筆法 등 갖가지 畫法과 筆意로 震旦樓



圖 2. 對松山圖

· 環翠樓·飛仙樓·天柱樓·紅波樓·九霞臺·靑琳臺·鎮星臺·丹雲臺·四風臺 등을 그린 것이다.
 一二張의 부채꼴그림(扇面畫)은 米芾拜石圖·賞月圖·蓮塘魚樂圖·水牛圖·鳥雀落坐黃梅圖·山水圖 등이다. 보관이 나빠 좀이 많이 슬어 있다.

一〇張의 山水畫를 그린 冊에는 淸溪晚釣圖·仿大癡道人圖·谷鶴圖·江村暮雨圖·楚山烟雨圖·秋林遠瀑圖 등이 있다.

八〇세가 다 됐을 때인 一七六五年에 그린 雜書冊(一二張, 二五·七×一五·六cm)에는 疎木懸崖圖(水墨畫)·魚藻圖(淡彩畫)·柳禪圖(水墨畫)·蟹蝦圖(淡彩畫)·蠟梅天竹圖(淡彩畫) 등이 그려져 있다.

觀瀑圖는 하늘을 저를듯 높이 서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 아래서 건너편 절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세 줄기의 폭포를 보고 있는 高士와童子를 그린 그림이다. 岩山의 皴法과 樹枝法 등이 간결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좋은 그림이다.

秀色凝空圖는 구도가 복잡한 山水畫로서 王蒙 黃鶴山樵의 筆意를 따르고 趙孟頫(松雪)의 詩句에서 感興을 받아 그린 그림이다. 다섯 그루의 큰 老松 아래 다리가 있으며 다리 위를 高士가 지팡이를 짚으며 건너 가고 있다. 中景에는 사나운 山이, 遠景에는 높은 山이 아득히 그려져 있다.

對松山圖(二八×五五cm)는 乾隆의 명령으로 泰山을 그린 것이다. 그림으로 秀作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양쪽의 울창한 松林이 특이하다. 중간에 난 산길을 따라 驕子를 타고 가는 인물은 貴人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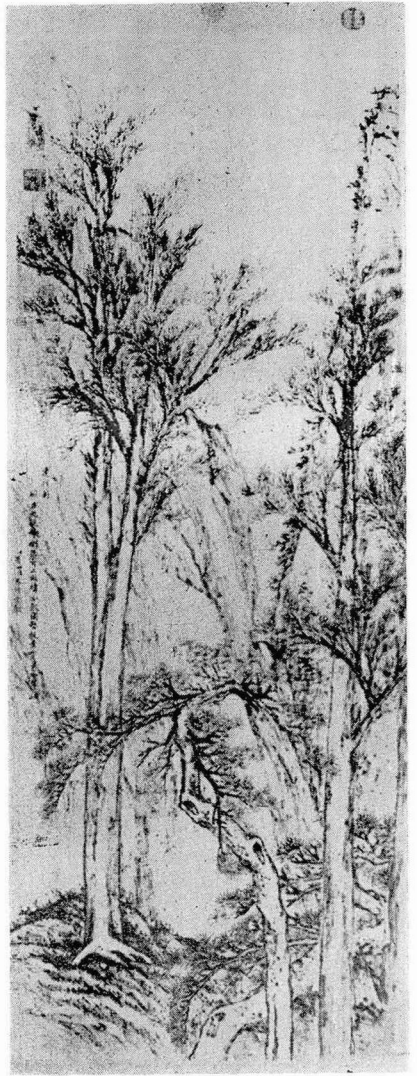


圖 3. 連理杉圖

形)이 二六方, 둥근 모양(圓形)이 八方, 기타 一方 등이다. 또 크기로 보면 〇·五×〇·五cm의 작은 것으로부터 三·六×二cm의 큰 것까지 多樣하여 글씨와 그림의 크기와 내용에 따라 가려뽑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쓴 印章은 倬·世倬·李世倬·穀齋·天壽 등이며 字體는 篆書體·隸書體 등이다.

印文의 내용과 적혀 있는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倬↓山水花卉翎毛(冊), 花卉走獸(冊)
世倬↓山水花卉翎毛(冊), 花卉走獸

(冊), 書畫(冊), 山水(軸)

李世倬↓花卉走獸(冊), 山水(軸), 仿宋元駿馬(冊)

穀齋↓花卉走獸(冊), 書畫(冊), 仿王蒙山水(軸), 擬王原祁山水(卷)

天壽↓山水花卉翎毛(冊), 仿宋元駿馬(冊), 書畫(冊), 達摩祖師像(軸)

星厓↓山水花卉翎毛(冊), 仿宋元駿馬(冊)

菴園↓花卉走獸(冊)

研田↓前赤壁圖(軸)

漢章↓允禧洞奔泉圖(軸)

鍊嶺李世倬印↓山水花卉翎毛(冊)

清在居士↓書畫(冊)

로 그린 맑고 깨끗한 그림이다.

李世倬은 山水 외에 人物·花卉·果品·翎毛 등도 잘 그렸으며 筆法도 多樣하여 乾隆 황제에게 그림을 그려 바치기도 했다. 그의 그림은 전통적인 書法과 西洋 畫法(이탈리아 화가 郎世寧은 李世倬과 함께 內府의 회화관인 如意殿에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을 배워 그린 외에도 詩를 잘 하여 詩의 인분 위기 묘사에 뛰어났다고 하겠다.

4 李世倬의 印章

李世倬이 그의 書畫에 찍은 印章은 모두 七九方이나 된다^⑧.

팔각글씨의 도장(陽刻朱文印)이 四一方, 하얀글씨의 도장(陰刻白文印)이 三七方, 빨강과 하얀글씨가 함께 있는 陰陽刻印이 一方이다. 이것을 생긴 모양대로 나뉘보면 네모꼴(正方形)이 四八方, 긴네모꼴(長方

5 맺는 말

清나라(一六一六)~(一九一)의 聖祖(康熙 황제, 一六六一)~(一七三三) 世宗(雍正 황제, 一七三三)~(一七三五)·高宗(乾隆 황제, 一七三六)~(一七九五) 때 八〇여 년간 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 李世倬이 분명히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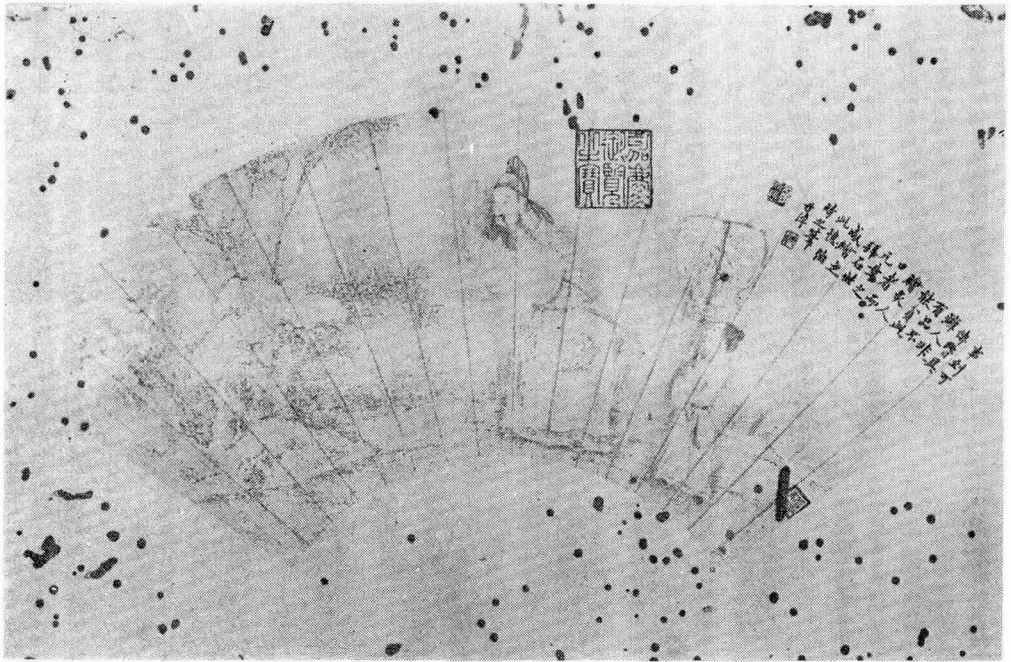


圖 4. 米芾拜石圖

람이라는 것과 그의 작품 및 인장을 이상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의 畫蹟이 불행히도 그의 조국인 한국에는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훌륭한 화가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臺北故宮博物院에서 열렸던 明清畫家特展 때 보았던 李世倬의 여러 그림들이 아련히며 오를 뿐이다.

머리말에서도 말했지만 이 글은 金載元박사의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상의 차이를 보다 더 소상하게 밝히고 새 자료를 조금 더 보태기 위한 것이다.

李世倬의 한국안에서의 家系가 더욱 연구되어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拙稿를 맺는다.

1976년 12월

至樂樓에서

〈註〉

- ① 安岐에 대해서는 金和鎮著「五百年奇譚逸話」、高裕燮著「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金載元著「麓村安儀周攷」와 「安岐」등과 곧 나올 「中國美術史」(許英桓著)에 소개되어 있다.
- ② 「中國歷代書畫篆刻家字號索引」(全二冊)과 「宋元明清書畫家年表」는 北京에서 출판된 것을 臺北에서 複製(一九七一年)한 것이다.
- ③ 李世倬의 아버지 李成龍은 安徽巡撫와 湖廣總督을 역임했으며, 外祖父 高天爵은 淮監運使를 역임했고 外三寸 高其佩는 名畫家였다. 李世倬의 字는 漢章, 號는 毅齋·清在居士·菘園 등이었으며 八旗 清의 兵制) 가운데서 正黃旗人으로 副都御史를 지냈다.
- ④ Oswald Sirena의 그 외 七冊이나 되는 Chinese Painting 제 5책 p.224에서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李世倬과 그의 작품을 해설했다.
- ⑤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을 보면 三韓은 「三韓(縣名)遼置, 屬中京道, 大定府高州, 今屬北京路, 大定府, 今熱河赤峰縣地。」로 되어 있고 赤峰縣은 「隋唐時爲契丹國地, 遼爲上京臨潢府及中京高州地, 金爲北京路地, 元屬大寧上都二路, 明初爲大寧全寧二衛地, 後廢入朵顏衛, 清初內屬, 爲八溝北京, 乾隆間折置烏蘭哈達廳, 尋改設赤峰縣, 光緒間升爲赤峰直隸州, 民國仍改稱縣, 屬熱河特別區域熱河道, 有諸色孤峰峙於縣治東北五里, 縣名以此……。」로 기록되어 있다.
- ⑥ 鍊字는 鐵字의 古字이다. 李世倬의 外三寸 高其佩도 鍊嶺이라는 印章을

새겨 썼다. 말할 것 없이 鍊嶺은 滿洲의 遼寧省瀋陽縣에 있었던地名이다.
 ⑦ 李相伯은 그의 책 「韓國史近世後期篇」(乙酉文化社刊, 一九六五年) P. 110-111에서 崔南善의 「古事通」을 引用하여 說明하고 安岐에 대해서 언급했다.

⑧ 洪璠鎬著 「留華韓國書畫家與收藏者探考」、臺北, 一九七二年, P. 126
 ⑨ Osvald Siren의 集計와 臺北 故宮博物院 수장품 및 個人 소장품들을 합해서.

⑩ 清中期(一八세기)의 山水畫派로서 王翬를 우두머리로 하며 개국하고 아를다우면서 實景과 觀念을 조화시킨 山水畫를 그렸다. 婁東派와 雙壁을 이뤘다. 李世倬은 王翬(石谷)로부터 직접 山水畫法을 배우기도 했다.
 ⑪ 「明清畫家印鑑」 P. 145-150

〈문화재전문위원〉

考古美術—뉴스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六次會議

一九七六年 九月 十七日 下午三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李瑄根 趙明基 金元龍 黃壽永 金裕善 崔淳雨 任昌淳 鄭慶雲 尹張燮委員이 참석하여 趙明基委員長의 司會로 會議가 개최되었. 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였다.

審議決定事項
 1 서울大學校 醫科大學附屬病院(舊館) 保存價値判斷

가 서울大學校 總長이 의뢰한 서울大學校 醫科大學附屬病院(舊館)의 保存價値判斷 要請에 對하여는 史蹟으로 指定保存토록 審議決定함
 (1) 指定名稱.. 舊大韓醫院 本館
 (2) 指定種別.. 史蹟

(3) 所在地.. 서울鍾路區蓮建洞二八番地
 (4) 指定範圍.. 本館 建物만을 文化財로 指定하되 餘地建物도 될수 있는한 保存토록 권고할 것을 審議 決定함
 (5) 指定事由.. 開化以後 西洋式建築양식이 우리나라에 進래한 初期의 建物이며 우리나라 醫學發展의 搖籃이라 할수 있는 建物임

나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과 同時 代에 建立된 類似한 建物도 調査하여 文化財 委員會의 審議를 받아 文化財 指定등 保存對策을 강구토록 建議함.
 2 楊平出土 金銅如來立像 指定
 京畿道 楊平에서 發見된 金銅如來立像을 國寶로 指定토록 審議 議決함

(1) 指定名稱.. 楊平 金銅如來立像
 (2) 指定種別.. 國寶
 (3) 現所在地.. 國立中央博物館
 (4) 發見場所.. 七六年 四月 十二日 京畿道 楊平

郡江上面新花里 五七五番地

(5) 指定事由.. 三國時代(六世紀末)의 樣式을 갖은 金銅佛로서 手法이 매우 優秀하고 保存狀態가 良好하여 우리나라 古代彫像의 최우수작에 屬함
 (6) 調査者.. 文化財委員 黃壽永

3 文化財現狀變更
 가 서울城廓 保護區域內 現狀變更 史蹟第一號 서울城廓 保護區域內 住宅 改築은 다음과 같이 許可토록 審議決定함
 (1) 許可

所在地	申請者	建坪	備考
서울城北區 三仙洞 一街 一—二〇一	김병학	二三	單層
서울城北區 三仙洞 一街 一—二〇〇	이학행	二三	單層
서울城北區 三仙洞 一街 一의 四〇	구환	二三	單層

(2) 許可條件